

사설(社說)

오늘은 ‘광선유포 기념일’

2022년 3월 16일

후계의 책임과 사명을 맡는다

오늘 3월 16일은 ‘광선유포(廣宣流布) 기념일(記念日)’로 1958년 이날, 도다(戸田) 선생님의 슬하에 남녀 청년부(青年部) 6000명이 모였다. “부탁하네, 광선유포를!” – 이것은 스승이 청년들에게 광포(廣布)의 전(全) 책임(責任)과 사명(使命)의 바통을 맡기는 의식이었다.

이후 64년, 스승의 구상(構想)을 모두 실현(實現)해 온 이케다(池田) 선생님과 공전(共戰)의 동지들에 의해, 광포의 대성(大城)은 쌓아 올려졌다(구축되었다). 그것은 사제의 정신을 잊는(계승하는) ‘인재(人材)의 흐름’에 의한 승리(勝利)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생님은 여러 차례 “인재를 육성(育成)하라.”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요체(要諦)를 “후배(後輩)를 위해 자신은 용감하게 발판이 된다. 자신을 능가하는 후배를 육성하자.”라는 마음이라고 지도(指導)했다.

지난 6일, 청년부간부회의 의의를 담은 본부간부회가 열렸다. 이날을 목표로 해 투쟁해온 청년세대. 전국에서 홍교(弘敎)와 인재(人材)의 확대에 노력하는 남자부(男子部)와 이케다화양회(池田華陽會), 학생부(學生部)의 멤버의 활약을, 본지에서도 소개했다. 이들이 사명(使命)에 일어선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거의 모든 벗에게 공통된 것이 ‘선배(先輩) · 동지(同志)의 존재(存在)’다. “저 사람이” “이 격려가?”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본간(本幹)’에서는 3000명에 의한 합창이 피로되었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뒤에도, 계속해 격려해 준 동지의 존재가 있었을 것이다.

가나가와(神奈川)의 한 남자부 멤버는 우인을 입회 결의로 이끌고 합창 녹화에 임했다. 2월 고향인 교토(京都)에서 대화의 장(場)을 갖기로. 선배가 차를 태워주었고, 다른 선배도 달려와 주었다. 그 진심과 소개자의 빛나는 모습에 절해 얼마 전,

우인은 입회를 완수했다. 지지해 준 선배는 실은, 일로의 고민 등이 겹쳐, 멤버와 좀처럼 마주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후배들의 분투를 열심히 뒷받침하는 것으로 자신이 변하는 계기를 잡았고, 진심으로 우인에게 다가서는 자신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거울을 보고 예배(禮拜)할 때 떠오른 그림자 또한 나를 예배하느니라.”(어서신
판1071 · 전집769)라고 하신 어금언(御金言)대로 상대의 불성(佛性)을 믿고 기원하고 격려하는 것, 그 자체가 자신의 부처의 생명을 빛내가는 것이다. 이 촉발에 의해 생겨나는 감동과 환희의 파동에 의해 광포(廣布)는 전진해 가는 것이다.

이케다(池田) 선생님은 ‘3·16’이란 “광선유포(廣宣流布)를 영원불멸케 하는 제자들의 새로운 맹세의 날”이라고 제시했다. 광포(廣布)의 대업(大業)은, ‘자신 이상의 인재로’ 라며 눈앞의 벗을 격려해 가는 한걸음에서부터 시작된다.